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독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최성일*

소리 내지 않고 읽기는 케이블방송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유선방송은 '소리 내어 읽는' 공중파 방송에 비해 볼거리가 다양하다. 적어도 스포츠 중계는 그러한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 대부분과 일본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는 이승엽 선수의 모습은 케이블 TV의 스포츠 전문채널에서나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묵독(默讀)과 케이블방송은 '후발주자'라는 점이 닮았다. 케이블방송을 하기 전에 공중파를 통한 방송이 먼저 있었고, 소리 내어 읽는 음독(音讀)은 묵독에 선행한다. 또 공중파방송의 난시청으로 말미암아 지역 중계 유선 방송 가입자가 증가했다면,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책 읽는 방식의 변화는 책 형식의 변모와 맞물려 있다.

시대마다 다른 독서법

프랑스의 서적사회학자 로제 샤프티에와 이탈

리아의 그리스 고문서학자 굴리엘모 카발로가 엮은 『읽는다는 것의 역사』(이종삼 옮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는 책의 형식과 그것을 읽는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책 형태의 변화와 독서습관의 변화는 마땅히 서로 보조를 맞춰 진행되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언어나 문화 단위지역에서도 독서실행은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진행 범위를 벗어 나지 못한다.”

머리말에서 두 사람은 “텍스트는 독서를 원활하게 해주는 지지기반이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다양한 지위가 부여된다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독서는 또한 특정한 행위와 공간 및 습관 속에서 구체화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독서를 인류학적 불변사항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인 양식을 부정하는 현상학적 접근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독자공동체, 독서전통, 독서법에 대한 특유의 여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독서와 독자의 장기간에 걸친 역사는 텍스트를 이용하고 이해하며 소유하는 방법의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서의 역사는 묵묵히 눈으로 읽는 현대적인 독서법의 계보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무엇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보다도 독서에서 잊혀진 행위와 사라진 습관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한때는 일반적인 독서법이기도 했던 먼 옛날의 이색적인 독서 모습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독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독서법을 위해 만들어진 텍스트의 원초적인 특유한 상태를 더 명확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국적 프로젝트

샤르티에와 카발로는 이 책을 통해 “각 연대별로 서양세계의 독서실행을 변형시킨, 그리고 책과의 관계를 변형시키기 위해 그런 실행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혁을 서술하려 하였다.” 아울러 “이 책은 편년체와 주제별 편찬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여, 고대 그리스의 목록법 발명부터 전자 혁명으로 가능해진 (또는 강요된) 오늘날의 새로운 독서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13장으로 나누어 논한다.”

뿐만 아니라 “고전고대 이래 서양사회의 특색을 이뤄 온 독서의 여러 가지 양태를 그 다양성과 특이성을 살려 재구축하는” 것을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역사가들의 임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샤르티에와 카발로는 이 책의 목표로 다음 두 가지를 설정한다. 그것은 “책의 빈번한 유통과 의미 생산을 제한하는 속박을 인지하는 일과, 독자가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개괄하는 일이다.”

『읽는다는 것의 역사』는 다국적 프로젝트다. 엮은이 두 사람의 국적도 다르지만, 두 엮은이를 포함한 공저자 13인의 국적은 8개 나라에 이르고, 이 책의 원서는 4개 국어로 구성되었다. 머리말과 1장, 4장, 8~10장은 프랑스어를, 3장, 5장, 7장, 12장은 영어를, 2장과 6장은 이탈리아어를, 11장은 독일어를 썼다. 한국어판은 영어판과 일본어판을 번역저본으로 사용하였다. 이 책은 번역자의 표현대로 서양의 “각 시대별로 해당분야 전문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쓴 논문들을 유기적으로 집대성했기 때문에 각 장의 내용이 웅만한 책 한 권의 무게를 지닌다.” 그러면 머리말에 압축된 내용을 통해 이 책의 전모를 짚어본다.



도서관의 역할도 바뀌어

“고대 초기부터 독서실행은 문자를 해독하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문맹자에게 ‘텍스트를 분배한다’는 의미의 독서형태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문자를 직접 ‘인식하는’, 더욱 확대된 의미의 독서형태로 옮겨갔고, 다시금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서는 주의 깊게 텍스트를 ‘주파하여’, 그 텍스트를 고찰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형태로 옮겨갔다.”

책 읽는 방법의 변화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맞물리기도 하는데, 헬레니즘 시대의 대형 도서관들은 독서를 위한 도서관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시기의 “도서관은 권력을 장악한 왕조의 위대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일단의 학자·문

인을 위한 작업장이고 전문적인 기구였다.” 책을 읽히기보다는 책을 축적하는 것에 머물렀다.

로마 시대의 공공도서관은 헬레니즘 시대와는 달리 이용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반 대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학자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13세기에는 탁발수도회가 성행하면서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이 나타난다. 책을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데 초점을 맞춘 도서관이 등장한 것이다.

“도서관 시스템, 이른바 도서일람표와 대출된 책을 기록하는 ‘대장memoriale’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운영방식이 확립되었다. 도서일람표는 이전 단순한 목록이 아니고 참조용 도구로서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배치를 표시하고 또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직사각형으로 된 여러 방으로 만들어졌다. 방의 중앙에 통로가 있고, 좌우에는 책상이 나란히 비치되었다. 책을 책상 위에 사슬로 매어 두었는데, 이는 독서와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책들이다.”

음독에서 묵독으로

서양 중세 독서습관의 가장 큰 변화는 책자형 책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음독에서 묵독 또는 중얼거리는 독서로 옮겨간 점이다.” 읽는 방법의 혁명적인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책자형 책’이라는 형태가 명상적 책 읽기로 중세의 독자를 이끌었다. 또,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따금 함께 독서할 때 소리를 낮춰 “읽는 것이 그들의 공동생활을 위해 불가피했다.”

독서방식의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장치로 서법상의 규칙과 강조문자가 사용되고, 문장부호에 새로운 쓰임새가 추가된다. 물론 “고대세계에서도 묵독법 사례가 있었듯이 중세에서도 음독의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11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이르는 독서의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방법의 독서가 행해졌다.” 책과 독서는 ‘이성ratio’의 휘하로 들어가고, 독서는 책을 책꽂이가 아닌, 머리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된다. 이로써 “책은 단순히 낱말을 ‘반추하여’ ‘심사숙고’ 하는 지식 저장고라기보다는 활용하여 여러 가지 지식(또는 지식의 작은 부분들)을 끌어내는 원천이 되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는 완전히 눈으로만 읽는 묵독이어야 했고, 모든 간섭이 배제된 침묵은 썩어진 텍스트에 대한 비판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독서혁명

고유명사로서 독서혁명Leserevolution은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계몽사상이 널리 보급되어 생겨난 대중 공간에서 유행한 독서법을 일컫는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새로운 부류의 독자와 출판시장을 창출했다. 이러한 “독서방법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일반명사로서의 독서혁명은 혁명의 일반적인 의미와 비슷하게 독서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국면을 가리킨다. 샤르티에는 인쇄술 발명과 인쇄물 확산으로 인한 독서혁명의 근본 원인이 단지 그 두 가지뿐일까? 자문(自問)한 다음,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그렇진 않을 거라며, 그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우선, “새로운 기술이 책의 기본구조를 변혁시키지 않았음이 분명”해서다. 모든 참조 시스템이 인쇄술 발명 이전부터 있었다고 단정한다 해서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손으로 필사해 책을 만든 몇 세기 동안 지금과 같은 책의 포맷이 정립됐다는 얘기다. 샤르티에는 ‘필사문화’에서 ‘인쇄문화’로의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인쇄술 발명이 독서의 장구한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독서의 역사는, 점점 늘어나는 독자들이 독해를 위해 발성이 불가피했던 음독형태의 독서에서 단지 눈으로만 책을 읽는 형태의 묵독으로 발전해 온 긴 과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텍스트의 전자적 전달과 그것이 강요하는 독서방식은 중세 이후 세 번째 독서혁명에 해당한다. “모니터 스크린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을 수 없어서다.”, “필사되거나 인쇄된 두루마리 책과 책자형 책이라는, 종전에 저작물을 담아 온 두 형태가 논리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완전히 독창적이고 전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이 책은 독서혁명의 유형과 양상을 조사·연구하여 이해가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몽테뉴와 루터 교회

인쇄술 발명 이후 변화상의 핵심을 짚은 대목에선 몽테뉴와 루터 교회에 관한 정보가 이채롭다.

“몽테뉴는 면학가적인 독서 규칙과 자세를 거절한 유일한 독자였다. 그는 절대로 밤에 독서하지 않았고 낮에 있는 동안에는 독서하지 않았다.

그는 체계적으로 독서하지 않았으며, 개방적인 것과 거리가 먼 전형적인 인문주의자 소장품같이 쓸모 있는 자원인 그의 서재는 세상에서 동떨어진 특별한 장소였다.”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어권 루터파 평신도들이 성서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졌다고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루터 교회는 적어도 17세기 말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개별적인 성서 읽기에 더 많이 치중하는 종교가 아니었다.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또한 일반적으로 북유럽의 루터 교회에서) 성서는 성직자의 책이었다. 성서는 목사와 수련목사를 위한 책이었으며, 이단이나 위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읽을 염려가 있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는 책이었다.”

몇 장의 주요 내용

「고대기와 고전기의 그리스」를 다룬 1장에서 스웨덴의 그리스 고전학자 예스퍼 스펠브로는 어찌서 그리스 사람들이 소리 내어 읽어주는 임무를 때때로 노예에게 맡겼는지 이해를 돕는다. 그것은 독서행위에서 읽는 사람은 동성애의 수동적 관여자 같은 역할을 맡아 천시되었고, 글을 쓰는 사람은 능동적 관여자의 입장이 되어 지배하고 존경받았기 때문이다.

굴리엘모 카발로는 로마세계의 독서에 주목한 2장 「두루마리 책에서 책자형 책으로」에서 음독에는 때때로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서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하나로 인식했던 당시의 의술이 증거가

된다. 독서는 보통 머리와 가슴과 팔의 매우 강력한 운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앤서니 그래프턴이 집필한 7장 「인문주의자의 독서」에 따르면, 16세기 전 기간에 걸쳐 북유럽 지식인들은 “고대유산의 근본적 요소를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했다.” 또한 “지적으로 더 숭고한 야심을 가지고 고전 텍스트를 당대에 유용하게 이용하려고 개작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제공되는 텍스트는 증가하는데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가 절실해지면서 학자들은 정성들여 만든 체계적인 독서법을 제공하려 했다.”

아르만도 페트루치가 독서의 미래를 내다본 13장 「독서를 위한 독서」는 시작부터 수년 전 있는, 전자책을 둘러싼 우리 지식계의 경박한 소란을 떠오르게 한다. “문화변용 또는 학식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활동으로 알고 있는 독서의 미래는 안전하다 할 수 있다.” 종이책도 그렇겠지. 페트루치가 인용한 델리오 칸티모리의 발언은 여전히 척박한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일깨운다.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읽는 법을 가르치고’, 책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책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페트루치의 진술은 이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독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현상이다.”

『읽는다는 것의 역사』를 난해한 이론서라고 하긴 어렵다. 독서의 역사에 관한 풍부한 사례가 흥미를 돋운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책은 결코 아니다. 한국어판의 본문만 590쪽이나 되는데다 손쉽게 읽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옮긴이의 말’에서 머리말의 시작 부분을 제외하면 “절대로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소감보다는 “각 장의 내용

이 웬만한 책 한 권의 무게를 지닌다”는 평가에 더 공감한다. 이 분야의 초심자는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정명진 옮김, 세종서적, 2000)를 통해 서양 독서실행 변천사의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나서 『읽는다는 것의 역사』를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P)